

다케타시의 의문의 종과 기리시탄(일본 에도시대의 크리스천) 이야기

다케타시 역사 문화관·유학관의 조금 어두운 방에 있는 유리 상자에 보관된 산티아고 병원의 종은 불가사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일본에 현존하는 4 개의 기리시탄 벨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알려진 무게 108kg 의 이 종에는 병원의 이름과 제조 연도인 '1612'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그 외 희미한 흔적들이 불가사의한 금속 공예품에 얹힌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종 주변에 뻗어 있는 2 개의 뚜렷한 선은 이 종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주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방식은 일본에서 불교 사원의 종을 주조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산티아고 병원은 16 세기 후반부터 17 세기 전반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나가사키시에 있는 기독교 의료 시설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산티아고 병원은 1612 년에 증축되었고, 이 종은 이 증축을 기회로 주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기리시탄은 막부로부터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점차 가혹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로, 1597 년에 나가사키에서 26 명의 가톨릭 교도가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탄압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티아고 병원은 1614 년에 폐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티아고 병원의 종이 어떻게 나가사키에서 다케타 지역까지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을 위에 있는 오카 성에 숨겨졌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병원이 폐쇄되기 수십 년 전부터 다케타 지역은 기독교로 개종하여 돈 파울로라는 세례명을 받은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영주), 시가 지카쓰구(志賀親次, 1566-1660)의 통치하에 있었기에 기리시탄의 안전한 피난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1593 년에 시가 가문은 오카 성을 떠나라는 명을 받았고, 이를 대신해 나카가와 가문이 오카 성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나카가와 가문은 처음에 기리시탄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쳤지만, 점차 기리시탄에 대한 단속이 심해져 많은 기리시탄이 처벌되었습니다.

16 세기 이후 다케타 지역의 기리시탄에 얹힌 많은 전설과 소문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시가지 내 무가들의 저택이 있는 거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현지정사적 '기리시탄 동굴 예배당'도 그중 하나로, 암벽에 교회가 연상되는 조각과 장식이 새겨져 있어 옛날 기리시탄의 예배당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무가 정치를 끝내고 일본 근대화의 계기가 된 메이지 유신을 맞이하며 오카 성은 1874 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때 산티아고 병원의 종은 나카가와 가문이 안치된 나카가와 신사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발견된 후 현재는 다케타시 역사 문화관·유학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